

中朝翻譯基礎

ZHONG CHAO

FAN YI

JI CHU

중조번역기초

● 김일
저



연변대학출판사

책임편집: 송창수
표지설계: 김승현
책임교정: 문창덕

H555.9

7

중조번역기초

ISBN 7-5634-2112-2



9 787563 421121 >

ISBN 7-5634-2112-2/H·457(民文)

定价: 29.00 元

중조번역기초 (中朝翻譯基礎)

김일 저

연변대학출판사 /

责任编辑: 宋昌洙

封面设计: 金胜铉

责任校对: 文昌德

中朝翻译基础

作 者: 金 日

出版发行: 延边大学出版社

社 址: 吉林省延吉市公园路 105 号

邮 编: 133002

网 址: <http://www.eabook.com> (东亚书城)

E-mail: eabook@eabook.com; eabook@hotmail.com

电 话: 0433-2965690

传 真: 0433-2732434

印 刷: 图们市荣华印刷厂

开 本: 850×1168 毫米 1/32

印 张: 11.75

字 数: 340 千字

印 数: 1-3960 册

版 次: 2005 年 8 月第 1 版

印 次: 2005 年 8 月第 1 次

ISBN7-5634-2112-2/H·457(民文)

定 价: 29.00 元

머 리 말

요즘 들어 사람들은 지식정보화시대란 말을 자주 하곤 한다. 시대의 정보화와 함께 번역에 대한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따라서 번역의 작용도 더욱 뚜렷해진다. 나라와 나라, 지구와 지구간의 정보전달은 번역을 매개로 하고있다.

번역은 2천여년의 역사를 갖고있다. 그러나 번역리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급단계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번역리론에 대한 연구와 교수는 줄곧 실험성적단계에 처해있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어에 대한 번역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초보적으로 짜임새를 갖춘 리론체계를 형성하였다.

본서는 다년간의 강의안을 정리한것이다.

본서는 서술에서 어느 한 리론체계에 구애되지 않고 선인들이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중국어와 조선어의 언어구조와 특징을 비교 분석하면서 현대적인 언어리론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번역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리론적인 해석에 과학성을 기하였다. 내용의 리론적깊이보다는 통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다 새롭고 알기 쉬운 예문들을 들기에 노력하였으며 체계는 번역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통적체계를 따랐다.

집필과정에서 《중한번역교본》(장의원, 김일)의 부분적 리론과 예구들을 적지 않게 참고하였고 번역계의 많은 학자, 전문가들의 최

신 연구성과들을 응용하였다. 그러나 평소에 생각했던 몇가지 입장을 정해놓고 집필하였기에 부득이 선학들의 이론과 견해차가 있을수도 있다는것을 미리 밝혀둔다. 위낙 노둔하고 재주가 없어 모자라는 점이 많으리라 충분히 짐작을 하지만 처음으로 책을 발간한다는 만용(蠻勇)에 부끄러움도 잊고 발간하는것이니 학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질정과 가르침이 있기를 기대하는바이다.

번역에서의 지도교수이시고 번역 교단에 서기까지 이끌어주신 장의원교수님께 기쁨보다는 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스런 마음이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물심량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리득춘교수님, 전학석교수님, 김영수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출판을 허락해주신 연변대학출판사 박수호사장님과 꼼꼼히 편집 및 교정을 맡아 수고하여주신 송창수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2005년 2월

지은이

차 례

머리말	1
제1장 번역의 일반적개념	1
제1절 번역의 정의	1
1. 번역의 정의에 대한 학계의 견해	1
2. 번역의 정의	6
제2절 번역의 성격	8
1. 번역의 교제성	8
2. 번역의 이중성	10
3. 번역의 «재창작»성	13
제3절 번역표준과 번역과정	17
1. 번역표준	17
2. 번역과정	21
제4절 번역의 종류	35
1. 통역	36
2. 기계번역	39
제5절 번역자의 소양	41
제2장 어휘처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45
제1절 단어의미의 민족성과 그 번역	45
1. 단어의 어휘적의미와 그 번역	46
2. 단어의 문맥적의미와 그 번역	57
제2절 체언처리에서 제기되는 문제	69

1. 대명사처리	69
2. 수사와 단위명사 처리	74
3. 준말처리	88
4. 외래어처리	93
제3절 용언처리에서 제기되는 문제	98
1. 일반동사처리	98
2. 일반형용사처리	104
3. 부사처리	111
4. 의성어와 중첩어 처리	125
제4절 중조번역에서의 한자어문제	138
1. 조선어의 한자어특성	178
2. 조선어의 한자어와 고유어	141
3. 독음번역법과 조선어의 한자어	145
4. 번역에서의 한자어처리원칙	155
제5절 속어처리에서 제기되는 문제	156
1. 성구와 속담 번역	157
2. 헐후어번역	171
제3장 문장번역	187
제1절 문법현상의 비교와 번역	187
1. 형태변화의 차이와 번역	188
2. 표현수단의 차이와 번역	189
3. 품사소속차이와 번역	198
제2절 문장성분의 전환과 번역	202
1. 주어의 전환	203
2. 술어의 전환	206
3. 규정어의 전환	218
4. 상황어의 전환	221
5. 보충어의 전환	225

제3절 복합문번역	226
1. 병렬적관계의 복합문번역	227
2. 연관적관계의 복합문번역	232
3. 층차가 많은 복합문번역	246
4. 특수형태의 문장번역	253
제4장 번역에서 쓰이는 몇가지 수법과 기교	280
1. 직역법과 의역법	281
2. 가역법과 감역법	283
3. 분역법과 합역법	300
4. 개괄역법과 구체적역법	303
5. 반역법	306
6. 어순변경법	308
제5장 문체번역	321
제1절 응용문체번역	321
제2절 문학작품번역	326
1. 소설번역	326
2. 시가번역	342
3. 영화번역	347
[부록]	
편지나 전보문 상용어 대조표	355

제1장 번역의 일반적개념

제1절 번역의 정의

1. 번역의 정의에 대한 학계의 견해

언어는 인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상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도구이다. 언어가 없으면 인간들사이의 교제는 불가능할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알고있는 동일어(同一語)로써 교제하는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제는 민족적, 지역적 제한성이 있다. 인류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은 민족적,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민족,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접촉을 하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이런 접촉과 교제의 수요로 생겨난것이 번역이라는 새로운 교제수단이다.

번역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언어문자활동으로서 두가지 언어체계의 접촉이다. 뿐만아니라 두가지 문화, 지어 각이한 정도의 두 문명의 접촉이다. 번역과정은 언어적요소가 결정할뿐만아니라 사회적요소와 심리적요소의 작용도 크다. 번역리론의 견지에서 말할 때 언어체계의 대비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들간의 언어체현을 드러내보

이는것이 중요하다. 번역과정에서 언어체계의 대비의 출현은 불가피한것이다. 레하면 단어대비, 문법대비 등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번역의 목적이 아니다. 번역은 단어 대 단어, 문구 대 문구 식으로 언어학적범주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교제학, 사유학, 심리학 나아가서는 그 언어의 문화적배경, 전통적특징, 역사적변천 등의 제반 요소들과 연관시켜 문자 그대로 《번역학》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때문에 번역이라는것은 그리 쉬운것만은 아니다.

일정한 문화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번역이라는것은 한 언어를 다른 한 언어로 전환시키는 언어문자활동쯤으로 료해하고있다. 그러나 번역리론을 모르거나 번역에 대한 리해가 모호하여 번역사업의 과학성을 흘시하고있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번역이라는것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배울수 있는것이라고 간주하고있다. 반면에 어떤이들은 번역은 복잡하고 어려워 《오를수 없는 나무》로 여기고있다.

번역의 정의에 대하여 학계에서도 쟁론이 많고 그 해석들도 구구하다. 이른바 《등치개념론(等値概念論)》을 주장하는 서방번역언어학 리론학파는 《번역은 부동한 형태의 두가지 언어간에 한가지 언어의 의미를 다른 한가지 언어의 의미로 등가교환하는 언어실천이다.》라고 하면서 《등치개념론》을 이 학파의 핵심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등치개념론》은 번역리론의 연구와 실천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선, 등치개념이 지칭하는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못하다. 단어를 가리키는것인지 단어결합을 가리키는것인지 아니면 문법을 가리키는것인지 명확하지 못하다. 설사 단어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같을수가 없는것이다. 중국어와 조선어를 보더라도 기나긴 력사행정에서 부단한 접촉으로 하여 어떤 단어들이 대응되는것이 있고 또 그 의미가 류사한것이 있기는 하나 완전히 같은것은 아니다. 레하면 중국어의 《不省人事》에 대응되는 조선어단어는 《인사불성》이다. 이 두 단어는 개념적인 의미에서는 《신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도무지 모를만큼 의식을 잃은 상태》로 서로 대응되는듯하다.

○ 病人发高烧, 已经不省人事。

△ 환자는 열이 심하여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의미폭이 완전히 같게 대응되는것은 아니다. 조선어의 «인사불성»은 상술한 뜻외에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가릴줄 모름»이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가 많다.

○ «그 녀석이 대학을 다닌다던데도 인사불성이더라.»

△ “那家伙念大学还不懂礼貌。”

뿐만아니라 어떤 단어들은 개념적측면에서는 기본적인미로 중국어와 조선어를 대응시킬수 있지만 파생적의미거나 연관적의미에서는 대응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 어느 민족의 어휘든지 모두 기본적인 뜻이 있고 다른 개념들과 결합되면서 생기는 갈린 뜻이거나 연관된 뜻체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결합은 논리적형식을 이루는바 이러한 논리적형식은 민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같지 않은 연관적의미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爬»와 조선어의 «기다»는 «몸을 엮드리거나 배를 바닥에 붙이고 움직여 나아가다.»라는 기본 뜻에서는 대응된다.

○ 这孩子会爬了。

△ 이 아이는 길줄 안다.

그러나 중국어의 «爬»는 다른 단어들과 결합될 때 «덩굴 등이 담벽에 붙어 뻗어나가다», «기운이 뻗어오르다», «주름이나 피로움 등이 신체부위에 나타나다» 등 갈린 뜻들이 있어 조선어 «기다»가 결합되지 못하는 단어들과도 결합될수가 있다.

중조번역기초

- 墙上爬满了藤蔓。
- △ 담에 담쟁이덩굴이 가득 뻗어있다.
- 顺着山脚爬出去的公路。
- △ 산기슭을 따라 뻗어나간 신작로.
- 皱纹爬满了额头。
- △ 이마에 온통 주름살이 잡혔다.
- 难过爬上了嘴角。
- △ 괴로움이 입가에 어렸다.

조선어의 «기다»는 «(안개나 땅거미가) 바닥을 훑어나가듯이 퍼져나가다», «남에게 놀려 꿈쩍 못할 정도로 비겁하게 놀다.»라는 갈린 뜻들이 있어 역시 중국어 «爬»와 결합관계에서 구별된다.

- 산에서 내려오니 땅거미가 기기 시작했다.
- 반장앞에서는 설설 긴다.

이런 경우의 조선어의 «기다»는 중국어의 «爬»에 대응시킬수 없다. «기는 놈우에 나는 놈 있다», «기지도 못하고 뛰려 한다» 등 속담에 사용되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언어학의 견지에서 대비거나 대등을 연구할 때는 음소, 의미소, 단어, 단어결합, 구절, 문장, 단락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의 대등이거나 대응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언어행위의 실제적효과는 의미분석으로만 해명할수 없는것이다. 어떠한 언어정보는 단어의 의미와 상반될 때가 있다.¹⁾ 언어성분의 대등과 의미의 대등은 결국 화용적 대등의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때문에 화용적대등이야말로 번역에서

1) 김제: «등호번역탐구» 24페이지, 중국대외번역출판사(1998). 뉴마크(Newmark)가 프랑스어«objets trouves»을 «lost property»로 번역한것은 «trouves(찾은것)»와 «lost(잃은것)»는 비록 뜻은 상반되지만 각자 «objets»와 «property»와 결합된 다음 이 두 단어결합이 가리키는 뜻이 같기때문이다.

등치의 기초가 된다.

다른 한 번역리론서는 «한가지 언어중의 언어부호를 리용하여 다른 한가지 언어중의 언어부호를 해석하는것이다.»라 하면서 번역의 정의를 «해석»에 력점을 두었다. 이것은 번역의 정보전달만 강조하고 접수자의 효과성에 대하여 무시한 단점이 있다. 번역은 해석의 일면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문의 형식과 풍격을 살려야 하는 일면도 있다. 어떠한 민족의 언어든지 모두 민족적, 지역적, 류파적 특징이 있기 마련이며 또 어떠한 문장이든지 시대적특징과 화자거나 저자의 언어적개성이 있기 마련이다. 번역이라하는것은 이러한 우점들이 다른 언어에 그대로 옮겨져 이로부터 다른 언어로 사유하는 접수자가 정확한 리해와 강렬한 감수를 얻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해와 감수가 원문을 읽는 접수자가 느끼는 감수와 같거나 비슷하게 하여야 한다. 번역문접수자의 루트와 원문접수자의 루트가 같아야만 이러한 효과가 있을수 있다. «한가지 언어부호로 다른 한가지 언어부호를 해석»만 한다면 두 접수자사이의 접수루트가 다르기에 감수가 다를수 있다. 또 생동성이거나 형상성이 떨어져 원문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거나 리해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고 접수자의 강렬한 반응도 얻을수 없게 될것이다. 이러한 편견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은 번역의 성질을 정확하게 리해 못한데 있다.

미국의 번역리론가 바르후다로브(巴尔胡达罗父)는 «번역은 내용과 의미가 변하지 않는 정황하에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의 산물로 개변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번역이란 원문의 정보가 접수자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접수자의 반응(효과)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번역문은 원문과 내용, 의미가 같아야 할뿐아니라 번역문을 읽는 독자가 느끼는 감수가 원문을 읽는 독자가 느끼는 감수와 같아야 한다»는것이다. 번역의 «3대 원칙» 내용이 제시된 이 리론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도 명확한 «등효원칙»의 제약이 없으면 리론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실

천적으로는 실현될수가 없다. 번역자가 새로운 접수루트의 특점에 근거하여 정보전달형식을 개변시키거나 지어 부분적 내용까지도 조절하여 번역문의 형식과 내용의 통일체를 새로운 접수루트에 적용시켜 원문의 통일체가 원문접수자 루트에 적용된것과 같게 할 때만이 느끼는 감수가 같거나 비슷한 효과를 얻을수 있는것이다. 번역은 이런 형식과 내용의 개변과 불변의 모순의 통일속에서 《등효》가 완성될 수 있다.

2. 번역의 정의

그럼 번역이란 무엇인가?

번역은 기계적인 모방이 아니다. 번역을 원문에 대한 단순한 모방으로 간주하는이들도 있다. 번역활동을 할 때 번역문 언어의 문법, 관습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원문의 내용과 형식, 격식만 추구한다면 번역문이 번역문언어의 규범을 리탈하는 현상이 생길수가 있다.

서로 다른 민족일지라도 객관세계를 인식하는 사유방법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유의 기초가 되고 또 사상을 표현하는 도구인 언어는 다를수가 있다. 중국어와 조선어만을 놓고 보더라도 어휘, 문법, 어음 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수가 있다. 중국어의 기본적인 특징은 형태변화가 없고 어순이 비교적 고정되어있으며 말에 성조가 있는 반면에 조선어는 형태변화가 발달되어있고 어순도 비교적 령활하다.

○ 昨天, 整天看了连续剧头都迷忽忽的.

△ 어제, 온종일 드라마를 보았더니 머리까지 땡하다.

중국어는 대체로 주어-술어-보어(svo)의 순서이고 조선어는 주어-보어-술어(sov)의 순서이다. 그리고 중국어에는 보충어(补语)가

있지만 조선어에는 보충어가 없다. 중국어의 보충어는 일반적인 경우에 상황어형식으로 표현된다.

○ 我怕他忘记, 再三对他说了-遍。

△ 나는 그가 잊을가 걱정되어 재삼 당부했다.

부동한 언어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고 원문에 대한 모방만 한다면 번역문이 번역문언어의 관습에 위반될수 있을뿐만 아니라 원문의 사상내용도 정확히 표현시킬수가 없을것이다.

어떠한 민족이든지 자기의 역사, 전통, 풍속 등이 있다. 이런 특정된 환경에서 발달되는 언어는 필연적으로 구사와 표현에서 독특한 개성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같은 대상, 같은 현상에 대한 인식일지라도 표현에서는 민족마다 다를수 있다. 레하면 《(무슨 일을) 아주 쉽게 해낼수 있음》을, 중국어에서는 《易如反掌》이란 성구로 《손바닥을 뒤집는것이 가장 쉬운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조선어에서는 《식은 죽 먹기》란 성구로 《식힌 죽을 먹는것이 가장 쉬운것이다》로 표현을 하고있다. 때문에 번역활동은 원문에 대한 《순수 복사》하는 활동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과 능란한 예술적필치를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원문의 《소개자》가 될것이 아니라 작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번역활동은 순수한 창작활동과는 다르다. 풍부한 상상, 형상적인 언어를 구사할지라도 이 모든것은 《원문을 읽는 독자에게 전달하는 사상내용과 효과》라는 《예속》을 떠날수는 없는것이다. 언어간의 차이만을 감안하여 마음대로 원문의 형식이나 풍격 등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형식과 내용은 통일체로서 내용이 없는 형식이 있을수가 없고 형식이 없는 내용도 있을수가 없다. 번역은 언제나 원문의 내용과 형식의 《속박》과 번역문 창작《자유》의 결합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때문에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